2026.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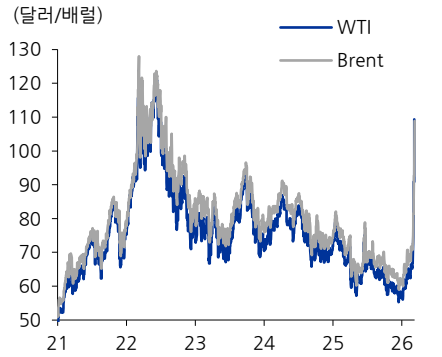
# FI Weekly

채권 김지나
6148 / jnkim0526@eugenefn.com

## 이란 사태와 채권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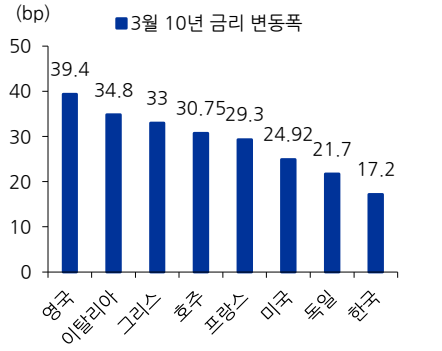
- 급작스러운 전쟁으로 글로벌 채권시장 급격한 약세. 유가와 천연가스 등 주요 원자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발. 지난 러-우 전쟁 당시처럼 유가 상승 → 인플레이션 → 기준금리 인상 → 시중금리 상승의 불안이 재현되고 있음.
- 미국에 비해 한국의 금리 상승/변동폭은 더욱 극심할 것으로 예상됨. 미국은 느리기는 하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내에 있어 통화정책 기대감이 유효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음. 한국은 지난 8월 이후 기준금리 인하를 멈췄고, 1월 금통위를 기점으로 공식적으로 동결 기조로 전환했음. 더불어 미국은 고용 둔화의 기로라는 경기적인 호재도 있음(2월 비농업 고용 쇼크).
- 한국은 경기 외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못할 이유들(부동산, 환율)이 미국에 비해 많음. 사실 상 경기 침체가 아니고서는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오히려 금융 불안정과 환율,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게 되면 인상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환경. 이란 전쟁 이전에도 지난 10월부터 이미 시장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꾸준히 반영해왔음.
- 절대적인 금리 레벨로 볼 때 금리 인상을 선반영해온 기간이 길다고도 해석되지만,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물가와 금리 인상에 여전히 민감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음. 2월 금통위를 통해 채권시장 안정화 의지를 확인한 것은 다행이나 지금은 국내 통화당국과 정부의 정책으로 시장이 안정될 만한 이벤트는 아님.
- 현재 시장을 진정시켜 주기 위해서는 한은의 강한 인하 의지가 확인되어야 하지만, 1) 전쟁이 장기화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2) 반도체 등 업황 펀더멘털이 둔화할 수 없고 3) 인플레이션 우려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기대할 수 없음.
- 절대적인 레벨/중장기 캐리 관점에서 볼 때 매수로 접근할 만한 레벨이나, 레벨을 떠나 변동성이 급격히 높아졌기 때문에 추가 약세를 가정하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하는 시점이라고 판단됨.

**국제유가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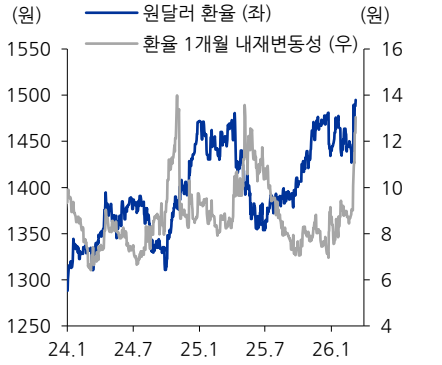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주요국 금리 급등**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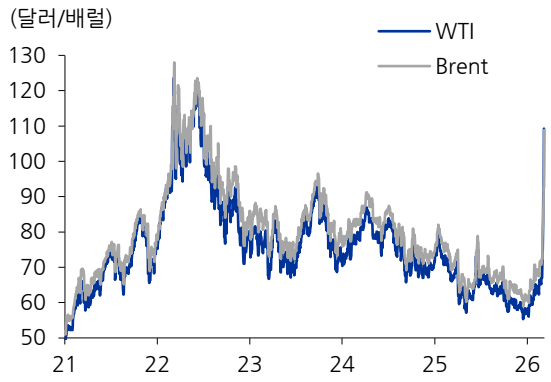
**한국 환율 우려도 점증**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 전쟁으로 국제유가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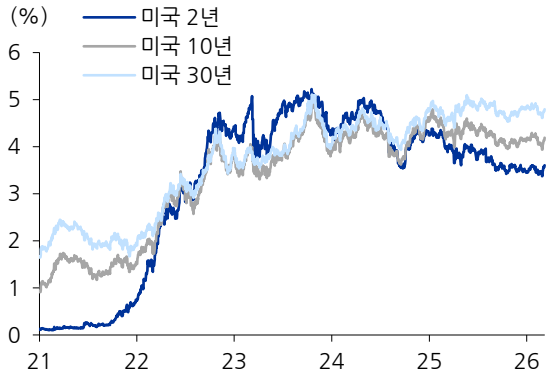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 러우 전쟁 당시 글로벌 인플레 우려 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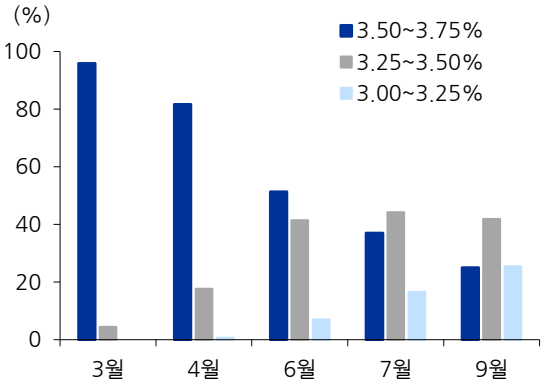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 미국 주요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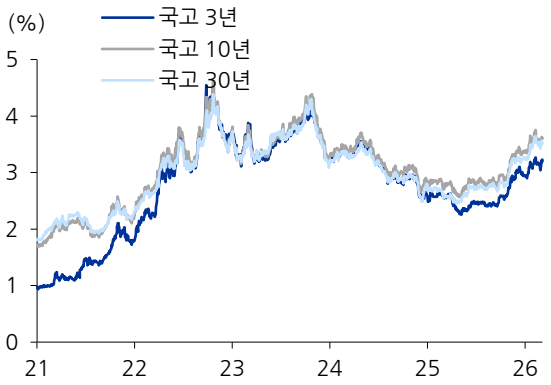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은 살아있음




자료: CME Fed Watch, 유진투자증권

## 한국 주요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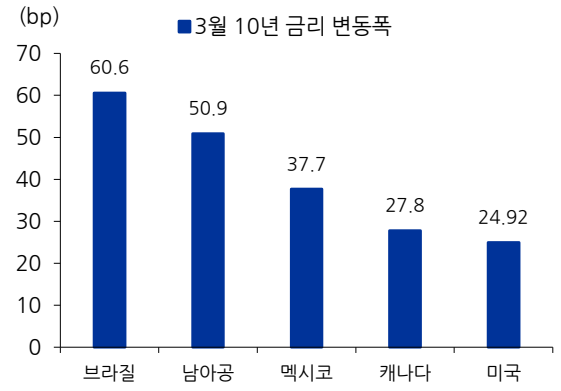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유진투자증권

## 원화 약세 우려도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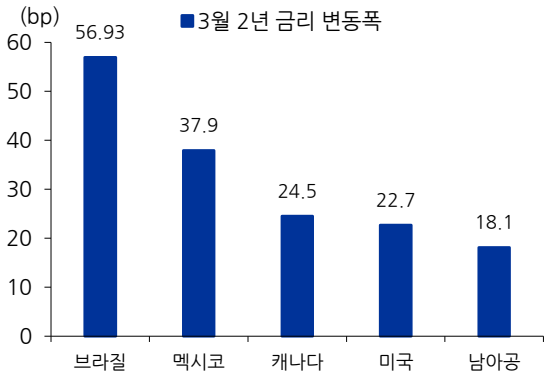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 미주 주요국 10 년 금리 월간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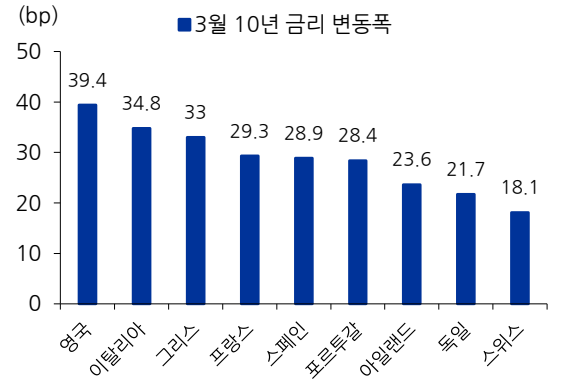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 미주 주요국 2 년 금리 월간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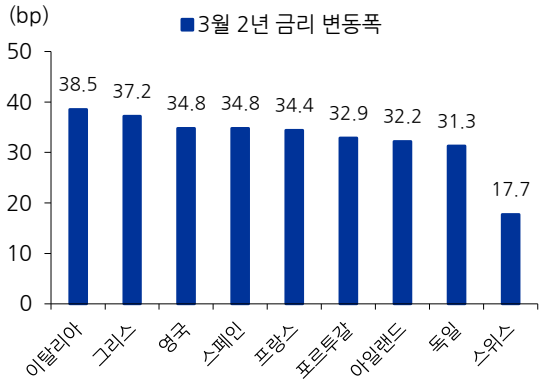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 유럽 주요국 10 년 금리 월간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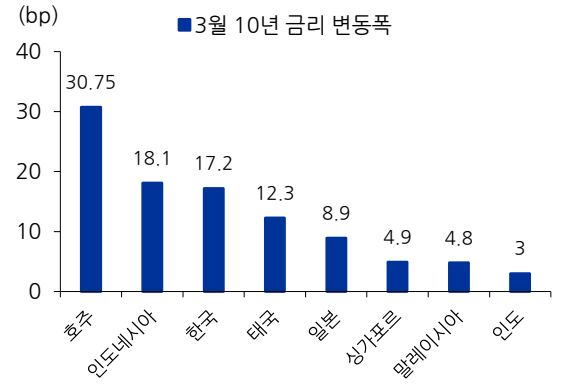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 유럽 주요국 2 년 금리 월간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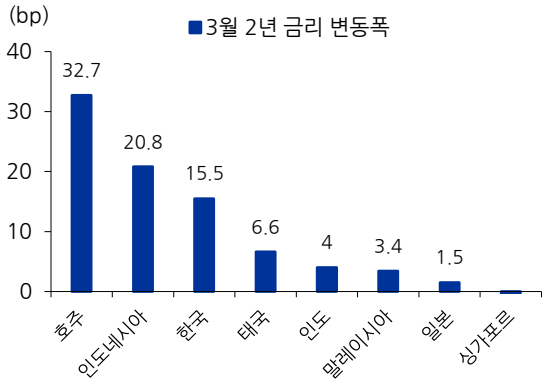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 아시아 주요국 10 년 금리 월간 변동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 아시아 주요국 2 년 금리 월간 변동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